

제 13 장 사도 행전 Tape #8102

해안 근처 바로 가까이에 한 항구 도시가 있는데, 지금 교회가 있고, 교회 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1절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라.”** 첫째로, 다른 배경을 가진 자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지만, 이 교회 안에는 다른 많은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그는 키프러스에서 온 유대인이었고,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한 아프리카 지역의 이름이며, 실제로 나이지리아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가르쳐진 어떤 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요청 받았던 구레네의 시므온이라고 보기에 충분히 흥미롭습니다. 시므온[Simeon]과 시몬[Simon]은 같은 이름이고,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도록 그들이 한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므온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시므온[Simeon]과 같은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구레네의 루기오도 아프리카 사람이었고, 마아넨은 사분영주 헤롯, 혹은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양육을 받았는데, 물론 침례자 요한을 사형 집행했던 헤롯 안디파스와 소년시절의 친구였을 것이며, 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배경에서 나왔는데, 궁궐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 온 동료까지, 키프러스 섬에서 온 바나바까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던 다소가 고향인 바울 등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안디옥에 있던 대언자들이나 교사들은 교회에서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2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자, 저것 재미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거기서 주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회중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우선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고, 주님은 그 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분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되풀이한 것처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1:6).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물론, 흘러 나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 내게로 구별하라는 진동하는 것과 같은 말소리가 있었나요? 아니지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대언, 대언의 말씀인데, 그 이유는 대언자들이 있었다고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언의 말씀에 의해, 바나바와 사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것을 위한 부르심과 사역을 위해 구별된 것인데, 이는 대언의 은사가 초대교회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이지요. 수없이 많은 신적인 안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대언자 아가보에 의해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감옥에 갈 것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주기 위하여 손을 얹었을 때, 디모데는 하나님에 의해 선물을 받았고, 그리하여 나중에 바울은 그에게 써서 말하기를,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딤후 1:6)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안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은사에 대해 말하는 대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언의 은사가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종종 실행되었던가를 알려 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한 대언의 은사를 가진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그들을 부를 곳에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로 구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 절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지시되어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내보냈습니다.

4 절 **“그리하여 이들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그들을 보낸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행위를 지시하신 것인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공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활동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을 성령님께 의지했던 것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활동의 안내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님에 의해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실루기아를 떠나,” (그들은 실루기아에서 떠났는데, 그곳은 안디옥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곳으로 안디옥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배타고 키프러스로 향해하여,”** 실루기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키프러스 섬으로 가려면 지중해를 지나 조금만 가면 되는데, 흥미롭게도 바나바가 키프러스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숙한 곳으로 먼저 갔고, 그들이 키프러스를 떠나 비시디아로 갔는데, 그곳은 다소가 있는 곳으로, 다소는 비시디아에 있으니, 그들은 또한 바울에게 친숙한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키프러스로 향해했습니다. 5 절 **“살라미에 이르러,”** (키프러스의 한 섬으로, 그들이 향해하던 곳으로부터 본토 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이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 그의 어머니의 집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성령님에 의해 구출된 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곳으로, 베드로는 교회가 기도하고 있던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집은 교회로서 기도하는 집이었고, 당연히 성경 공부를 하는 집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마가는 아마도 22 혹은 23 살 정도였을 것인데, 마가라고 불리는 복음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마는, 십자가 사건 당시 그는 아마도 12 살쯤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약간의 흥미로운 통찰력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셨을 때, 동산에 아마 12 세쯤 보이는 조그만 소년이 하나 있었고, 그들은 그를 붙잡기 위해 옷을 잡아, 벗어나려고 꿈틀거리다가 벌거벗은 채로 동산에서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 그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조그만 소년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과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0 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데, 이 점으로 보아 마가를 20 대의 초반에 두는 겁니다. 아마 그들을 위해 심부름을 했을 것이고, 그들을 섬김으로 도와주는 것인데, 아마도 음향기와 그 관련 도구를 들고 다니는 일들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6 절 **“그들이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에 이르러,”**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섬을 길이로 지나간 것인데, 왜냐하면 바보가 그 다른 편에 있었기 때문이며, 바보는 키프러스 섬의 수도였습니다.)

“어떤 마법사를 만나니 그는 거짓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 이름은 바예수더라.”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즉, 그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이고, 예수는 보통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여호수아니, 바예호수아가 되고, 헬라어로는 예수인데, 그들이 예수를 말할 때, 종종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분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른 아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시도된 것입니다. 그 분은 나사렛의 예수님이시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어느 예수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나이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바예수입니다. 7절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더니 바울은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자, 이 바나바와 사울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키프러스 섬에서 그리고, 물론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되도록 구별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 그 팀은 바나바가 약간 이끌어 가는 모습이었지만, 멀지 않은 후에, 바울이 인도하는 모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읽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작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그런데 이 마법사 엘루마는,”**(이것은 바예수를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마법사라는 뜻이라)**(자, 그것은 숙련된 사람을 의미하며, 그는 요술쟁이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생각에 거기 있는 그런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같은 것이 있다고 느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바예수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서기오 바울에게 자문을 하던 자로, 요술쟁이였기 때문에, 강신술과 같은 방법으로 자문하는 것입니다. 정령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법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그들이란 바나바와 사울을 말합니다.)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니,”** 여기에 한 사람이 있어, 그는 관할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가졌으나, 지금 믿음에서 뒤돌아서게 하려는 그 교활한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9절 **“이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네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것은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연설이지만, 바울은 상관하지 않고, 아주 통렬하고 무거운 것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속임수와 기만이 가득한 것, 너 악마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대적아!! 주님의 길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느냐?

11절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잠깐 동안 말입니다.)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하니 그가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지금 서기오 바울이 여기에 있고, 그는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한 것으로 사람의 영과 같은 것을 가진 자로, 자문관 또는 고문관이었던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아니오, 아니오,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그를 향해 돌아가서, 너 악마의 자식아! 속임수와 기만이 가득한 자야!, 네가 얼마나 주님의 길을 악한 길로 바꾸려고 하느냐?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자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메시지란 말인가? 라고 했습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일어난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그에게 일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13절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타고 떠나 밤빌리아와 베히가에 이르니,”**(그래서, 그들은 터키, 지금의 터키인 밤빌리아의 베히가를 가로 질러 향해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밤빌리아의 해안 지역은 습지가 많아, 말라리아 열병이 아주 많은 곳이지요. 그들이 해안 지역에 머물지 않고, 즉시 높은 지역으로 기수를 돌린 것은 바울이 말라리아 열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사안에 대해 가능성을 아주 높여줍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은 베히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이곳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때

우 거친 여행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몇 개의 능선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거친 길 중에 하나였으나, 바울은 높은 지대로 가기를 갈망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왔고, 물론 이것은 내륙의 안디옥을 말하는데, 이곳은 해발이 1,200 미터 정도의 고원지대로, 그들이 복음을 들고 거기까지 갔고, 지금은 그곳을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바울은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졌던 갈라디아서, 그 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너희에게 온 것을 너희가 안다고 했는데[갈 4:13], 내게 병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마도 그의 머리를 쪼개지게 하는 말라리아 열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믿게 하는 이유일 것이라며, 어떤 사람은, 그것은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가치를 사실적으로 말한다는 이론에 쓰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열병으로 인한 머리가 쪼개지는 증상이라, 모든 것이 추측이지만, 흥미롭게 생각할 만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문제들을 종종 말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눈이 너무 좋지 않아, 아마도 심한 두통이 있었을 것이거나, 편두통 같은 것으로 이 일들은 먼저 눈으로 가거나 등등 때문입니다. 그가,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는데[갈 4:15],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그것을 나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그 지역,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왔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 절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읽은 뒤에,”** (보통 전통적으로, 그들은 율법의 한 부분과 대언자들의 글 중에 한 부분을 읽습니다.)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편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16 절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들으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복음의 전체를 다 언급하여 기록한 바울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마르스 언덕의 아텐에서 연설한 것도 그 메시지의 한 부분만을 말했다 뿐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기록된, 복음의 전체를 다 언급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권고했으나, 그들의 역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7 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하던 백성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고,”** 18 절 **“광야에서 약 40 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 그 백성을 낳았다는 것을 항상 고려해 생각하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꺼내셔서 구원하셨고, 보호하셨으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부유한 상속이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낳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 절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시고,”** 이것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가나안의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각기 다른 지파들의 소유가 될 땅의 부분들에 대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20 절 **“그 뒤에,”** (여호수아가 죽고,)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 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21 절 **“그 뒤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 년 동안 주셨다가,”** 22 절 **“폐하시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그에 대해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되어 광야에서 방황하며 40년을 지냈고, 450년 동안 사사의 시대가 있었으며, 사울의 40년 통치가 지난 뒤 지금은 다윗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정말 흥미로운 하나님의 진술인데, 왜냐하면 다윗을 볼 때, 당장 그가 완전한 자와는 거리가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데, 완전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를 했고,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 없는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렇지 않았고, 그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를 지적하자, 그가 그의 죄에 대해 빠르게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배의 사람이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복을 주시며, 그분의 마음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다윗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 보면, 왜 다윗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시편을 통틀어 보면, 경배와 찬양, 그리고 모든 것의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을 두고 다시 한

번 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내 뜻을 성취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는 요구했는데, [당신이 몇 차례나 읽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주님께 요구했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모사와 안내를 구해 왔습니다.

이제 다윗까지 와서, 그는 말하기를, **23 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예수님이시라.”** 그는 몇 년 뒤에(삼하 7장), 다윗은 그의 호화로운 궁궐에 앉아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그 텐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여기 호화로운 궁궐, 즉 대리석과 상아 등, 온갖 것이 있는 곳에 살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곳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좋게 그분을 위해 집을 지어야 할 것이야,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집을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 집을 짓고 말거야! 그의 마음에 그러한 결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인 친구, 나단을 들어오게 하여, 다윗은 말하기를, 나단, 나는 결정했어, 그것이 영감 되었다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걸세, 영광스럽게 할 것이란 말이야, 장엄할 거야! 내가 건축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할 것일세,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것 참 빛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단아, 너 오늘 정말 마음이 부풀었군, 나를 위한 집을 짓도록 다윗에게 격려했다고? 나단아, 나는 다윗이 나를 위해 지은 집에 거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그의 손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그는 전쟁의 사람인데, 그건

모순되는 것 아니냐? 내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다윗에게 가서, 내가 왜 나의 집 짓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지를 그에게 말해야만 할 거야. 네가 그를 격려했으니, 너는 그가 하지 말도록 반드시 말할 책임자라고 본다. 그러나 너를 가볍게 해 줄 터이니, 자 내가 그에게 가문을 세워줄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그의 씨로부터 보좌에 앉을 왕이 영원토록 나올 것이라고 말해 주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나단은 다윗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다윗 왕이여, 내가 좋지 않은 소식과 좋은 소식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나쁜 소식부터 먼저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소이다, 왜냐하면 그 분께서 그것을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이오, 당신의 씨로부터 보좌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라 하더이다. 다윗은 주님 앞으로 나가,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당신은 양들의 뒤나 따르는 양 무리에서 저를 취하여, 당신 백성을 통치하는 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겸손히, 저는 오로지 양을 치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와서, 저에게 왕이라는 의미의 기름을 부었을 때, 저는 양 뒤를 따르는 베들레헬 들판에 있던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양 뒤를 따르는 양 무리에서 저를 취하셨고, 저를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나, 지금 당신은 올 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구라도 그것을 말할 수 있었다면, 다윗은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사나이야말로 사상이 너무 뚜렷하다는 말이죠. 내 자신의 찬양의 정도를 높이기를 원할 때, 나는 시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사상이 뚜렷했고, 하나님에게 모든 찬양을 표현하는데 너무 유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에서조차 다윗은 말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씨로부터 구세주가 올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세주가 오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서 그를 동일시합니다.

24 절 “그 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은 백성에게 선포하니라.” **25 절** “요한이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 분이 아니니라,” (이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매 나는 그 분 발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으니,” **26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아 주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그래서, 요한은, 나는 그 분이 아니라, 그 분은 내 뒤에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말씀이 당신들에게 보내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7 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대언자들의 목소리를 성취하였도다.” **28 절** “그들이 그 분에게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 분을 죽일 것을 구하였노라.” **29 절** “그들이 그 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 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던(고전 15:3),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어떻게 성경대로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는지를 바울이 그들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노트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분은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 놓일, 고통을 당하실, 멸시 당하실, 거절당하실 그리고, 일어나실 메시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

언들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바울의 설교와 사도행전 2 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해 본다면, 바울의 것과 베드로의 메시지가 거의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의 장사와 부활에 대한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든 구약 예언들의 성취였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야임을 보이면서, 그것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30 절 **“하나님께서 그 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느니라.”** 31 절 **“이에 그 분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제 그들이 백성에게 그 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약 40 일 동안, 예수님은 그의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장소와 경우와 그룹들에게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32 절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역자 표기, good news 또는 glad tidings]을 알게 하노니 이 소식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33 절 **“바로 그 약속을 그들의 자녀 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같은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뒤를 지적하고, 구약에 예언되고 미리 보여준 예수님의 삶과 어떻게 모든 일들이 연관되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이 약속들-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시 2:7] 기록된 것과 같도다.”** 그가 두 번째 시편을 말해야만 했다는 것이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우리의 시편들에서 그것들이 질서대로 있으므로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들의 순서로 두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의 메시지를 설교했던 베드로처럼, 그도 충분히 재미있게, 그가 부활을 이야기하려 할 때, 그들에게 부활의 약속을 보이려고 성경구절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부활의 예언으로 사용했던 바로 같은 성경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가르칠 때가 되면,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성경적인 기초를 그들에게 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기초를 주려고 합니다. 34 절 **“또 하나님께서 그 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사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공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사 55:3] 하셨느니라.”** 35 절 **“그러므로 또 그가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시 16:10] 하였으나,”** 36 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으나,”** 37 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 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이 대언은 다윗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언의 성취(시 16:10; 행 2:27)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하게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8 절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예수님을 말합니다.) **“통하여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하는 것과,”** 그 분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멋대로 가는 양과 같이, 우리는 모두 자기의 길을 갔고,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분께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불법을 위하여 맞으셨고, 그 분에 의해 죄의 용서가 당신에게 가르쳐졌으며, 더 많은 것이 가르쳐졌습니다.

39 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은 나에게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어서, 후보자 명단에서 깨끗이 지워 주셨습니다. 나의 지난 죄들을 다 지워 주신 것이죠. 결코 나에게 그것들을 내놓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록이 깨끗해 졌습니다. 나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가 그 분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모세의 법은 어떤 사람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를 가지고 죄를 멀리 때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덮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에 가림을 받은 자는 얼마나 복된가, 행복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이 있다면 죄의 가림을 받은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죄가 무죄로 선고된다면, 정말로 경충경충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다니 말입니다. 그것들은 지워져 버렸습니다! 예, 용서된 것이지요. 덮여진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가져가십니다. 그는 후보자 명단을 깨끗이 지워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40 절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타치지 않도록 주의할지니 곧,” 다른 말로, 당신이 주의할 다른 대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대언입니다. **41 절 “보라 멸시하는 자들이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할지니 이는 내가 너희 날들에 한 일을 행할 것임이라 사람이 너희에게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합 1:5] 하니라.”** 하나님은 구속의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칭의의 섭리를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다 마치셨단 말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의 의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다 끝마치지 못하셨을까 마음을 놓지 못하고,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에 참여할 수 없지요. 불신앙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대언의 성취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너희의 날에 한 일을 행하리라. 비록 누가 당신에게 그것을 선언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고 있다, 너희가 알지만, 그 대언의 한 부분이 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42 절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이 간청하기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하라 하더라.” 이보시오, 내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싶소. 이것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일에도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다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소식! 내가 그것을 듣기 원하니, 다시 가르쳐 주세요.

43 절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과 신앙심이 있는 유대교 개종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며 권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의 놀라운 은혜를 보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십니다.

44 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함께 나아오나,” 얼마나 흥분됐을까! 지금 분명 어떻게 소식이 퍼지는가를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풍문이 퍼집니다. 온 도시가 그것을 듣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45 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거슬러 말하고 반박하며 모독하거늘,” **46 절**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그들은 매우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메시지를 주었으나, 보니, 너희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았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전하러 가노라.

47 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령하셨음이니 곧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너로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사 49:6] 하셨느니라 하나,”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종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은 세계적인입니다. 세상으로 가라, 모든 문화에 복음을 가르치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하신 대언들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이방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말입니다.

48 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재미있는 절이군요. 흥미로운 성경구절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만큼은 믿었더라. 우리의 한정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비밀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한정된 마음으로는 일치시킬 수 없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진리가 그렇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러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만큼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했거나 정하였는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선택하셨고, 땅이 조성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능력을 실행해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의 것이니, 그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데 있어 선택의 능력을 반드시 발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비밀이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선택은 수세기를 거친 논의를 통해서도 신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쪽 줄에만 서 있는데, 양쪽이 옳은데도 사람은 다른 한쪽에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왜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니,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만큼 믿었더라.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항상 그러는 것처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만큼 다 믿었습니다.

49 절 “주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 당신은 갈라디아에 있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온 지역에 퍼진다는 신호입니다.

50 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그 당시의 문화에서 로마의 영향과 갈라디아의 영향으로 여인들은 거의 존경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헬라인들의 모든 남자는 모임을 위해 고급 매춘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 모임에 동행할 여자 친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적 쾌락을 위한 매춘부와 같은 여자와 합법적인 자녀를 낳는 아내가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의 결혼과 여인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아주 수준이 낮은 것이지요. 성적 부도덕은 엄청난 것이었고, 이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종종 유대인의 종교에 심취하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아내의 위치를 더 존중해 주었고, 결혼에 대해서도 더 소중히 여겼으며, 결혼의 맹세들도 신실하게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있는 여인들 또는 남편이 재판관이나 통치자나 그 도시의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의 여인들은 종종 유대종교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기서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가치를 더 높게 두었기 때문이고, 결혼의 신실함에 높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유혹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회당에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믿음으로 개종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편들이 그 도시에서 탁월한 지도자로 있는 이 독실한 여인들을 선동했습니다.)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꺾박하게 하고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거늘,”** 여기서 나가라! 는 말이지요. **51 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자기 밭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 멀지 않고, 보통 말하면, 같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52 절 “제자들은,”** (즉, 믿은 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큰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것들로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고니움에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일정이 긴 여정이었으나, 이 두 장에서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더 보게 될 것이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 볼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죄의 용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속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칭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부활로 인해, 당신에게 반하여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의롭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반역과 위반한 모든 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영생으로 우리를 정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에게 빠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용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와 백성에게 당신의 축복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부활의 영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소서, 주님, 아주 특별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